ART SPACE HOHWA

FLOATING LANDSCAPES

유영하는 풍경들

KIM JONG SOOK
SOLO EXHIBITION

2022.08.19 ~ 2022.09.18

ART SPACE HOHWA
+82 2 6337 7300 INFO@ASHH.KR ARTSPACEHOHWA.COM
(04520) KOREA PRESS CENTER, 124, SEJONG-DAE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FLOATING LANDSCAPES

유영하는 풍경들

KIM JONG SOOK SOLO EXHIBITION

2022.08.19 ~ 2022.09.18

INTRODUCTION

아트스페이스 호화는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김종숙 작가의 개인전《유영하는 풍경들(Floating Landscape)》을 선보인다. 김종숙은 동양의 고전적 산수화를 크리스털이라는 현대적 재료를 사용하여 재해석한 회화 작업, '인공 풍경' 시리즈를 약 20여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인공 풍경 시리즈 초창기 작업부터 펜데믹 이후의 신작까지 총 15점의 크리스털 산수화를 소개하며, 작품 세계를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크리스털 산수화를 통해 표현된 꿈결 속 낙원의 모습이 펼쳐지는 전시가 될 것이다.

김종숙은 명멸하는 크리스털 산수화를 완성해 내기 위해 끊임없이 수공 노동을 반복한다. 우선 밑그림을 그린 뒤 여러 번 접착제를 코팅한 캔버스 위에 세필 붓으로 크리스털 알갱이를 수놓듯이 하나씩 붙여 나간다. 크리스털 입자가 모여 산과 물줄기를 이루며 '또 하나의 세계'를 빚어낸다. 때때로 오팔과 진주로 빚어진 순백색의 산풍경이 펼쳐지는가 하면, 강렬한 색조의 크리스털 라인을 한데모아 풍경 이미지와 함께 추상 패턴을 구성하기도 한다. 작가가 완성한 이러한 시각적 매혹은 관객을 화면 앞으로 초대한다.

그리고 캔버스를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작은 능선들이 만나 만들어진 요철을 발견할 수 있다. 크리스털의 솟은 부분과 꺼진 부분이 맞닿아 만들어진 엠보싱(embossing)이 무수한 빛의 산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관람객들은 휘황찬란한 산수화의 화면에 이끌려 캔버스에 다가감과 동시에 세포와 같은 수많은 입자들에 금방 손이라도 뻗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이렇듯 김종숙의 작품은 돋을새김과 같은 화면 연출을 통해 시각과 촉각이 결합된 경험을 유도하며, 다양한 회화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한편, 각각의 산수화들과 거리를 두고 모든 작품을 천천히 관망하는 순간, 빛의 파도로 출렁이는 거대한 자연 경관이 온 몸을 휘감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 발걸음을 움직이는 순간 경이로운 풍경이 허망하게 사라면서 또 다른 풍경이 나타난다. 병렬로 이어진 반짝이는 산과 들, 바다와 천, 꽃과 풀들은 관객의 신체적 움직임에 따라 유영(遊泳)하며 함께 춤춘다.

이렇게 개별 작품의 표면에 흐르는 빛 비늘들이 모여 정적인 공간에 생동감을 일깨워 내며, 관객은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 환상을 경험하게 된다. 과거와 현재 또는 실제와 가상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 같은 감각으로 무의식 안 세계를 마주하게 한다. 이처럼 김종숙은 작품에 내재된 시각적 풍부함과 관객이 보는 행위를 통해 몽환적 느낌을 극대화하며, 오랜 시간 작품을 바라보게 하는 매력을 지닌 작가다.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작가와 관객이 작품을 통해 깊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가장 원초적이며 우아한 미적 소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영국의 문학자 로즈마리 잭슨은 "환상은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현실 속에 감춰진 틈새 공간"이라고 정의했다. 틈새 공간은 현실에서 억압된 존재들이 비로소 가치를 발할 수 있는 공간이자 익숙한 세계를 낯설게 하고 뒤엎을 수도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김종숙의 크리스털 산수화는 동양 예술사에서 오랫동안 전승된 산수화의 전형을 해체하며 보이지 않는 작은 틈을 만들고, 그 공간을 통해 탐미적인 방식으로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 이야기는 꼭 완성된 버전이 아니라, 찰나를 포착한 미완성의 버전으로서 끊임없이 살아 숨 쉬고 확장된다. 그리고 우리는 작가가 전달하는 매혹적인 미완의 이야기를 통해 현실을 가로질러 그 반대편에 위치한 미지의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 전시는 작가 김종숙이 천착해 온 '인공 풍경' 시리즈가 어떻게 진화, 변주돼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오래된 동양 미술의 유산을 재해석해 동시대를 진동시키는 '유영하는 풍경들'(Floating Landscapes)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김종숙 만의 예술 언어를 음미해 보길 기대한다.

KIM JONG SOOK,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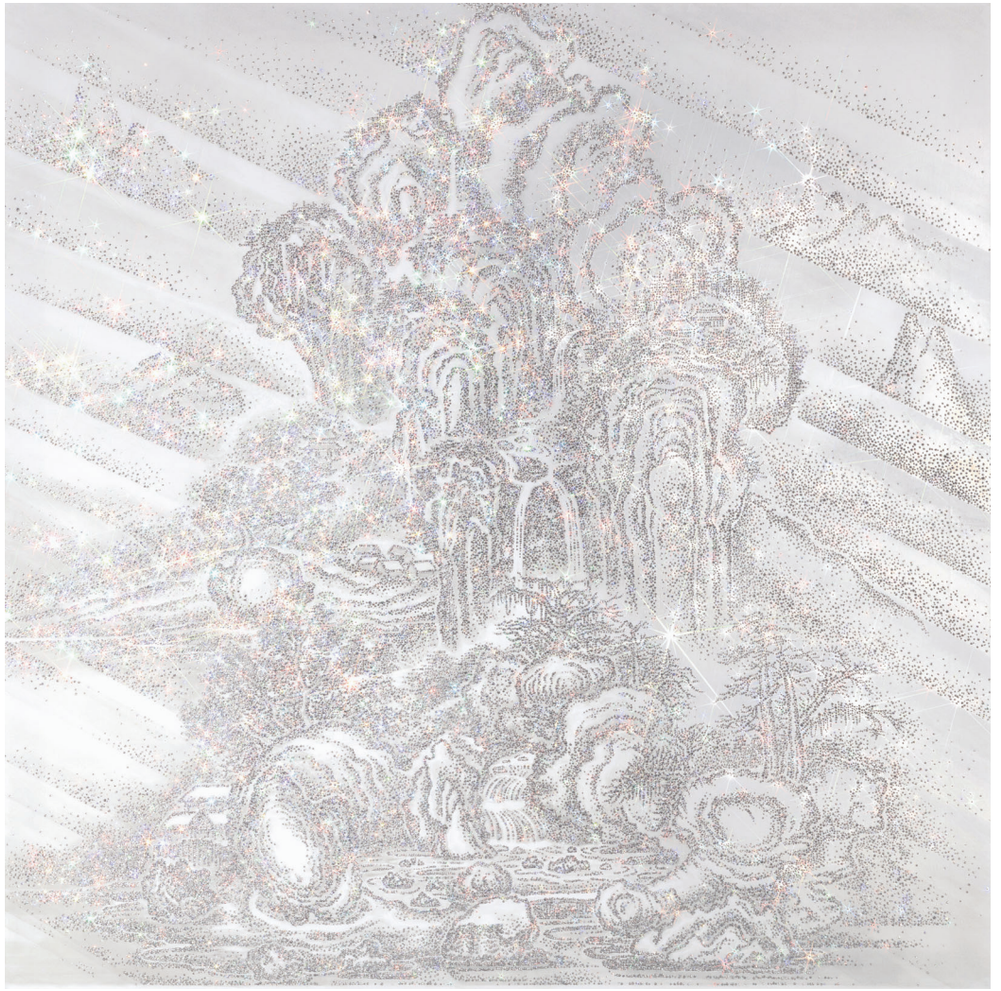
김 종숙 KIM JONGSOOK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회화전공)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개인전
2022 유영하는 풍경들 (아트스페이스호화, 서울)
2022 Tales Of Grandeur (Crystal Dome Palm Jumeirah, 두바이)
2021 Evanescence (크로싱아트갤러리, 뉴욕)
2021 Eternal Luminousness (그림손갤러리, 서울)
2020 Eternal Luminousness (어울림미술관, 고양)
2019 Eternal Luminousness (경민현대미술관, 의정부)
2018 Spectacle Crystal (LG U+ 갤러리 용산/마곡, 서울)
2018 Memory of The Light (슈페리어갤러리, 서울)
2017 빛의 산수 (조은갤러리, 서울)
2016 Sparkling Forever (슈페리어갤러리, 서울)
2016 Artificial Landscape (래갤러리, 부산)
2015 Artificial Landscape (온유갤러리, 안양)
2015 Artificial Landscape (신한갤러리 역삼, 서울)
2014 The Brilliant Day (롯데에비뉴엘, 서울)
2013 Artificial Landscape (관훈갤러리, 서울)
2012 Artificial Landscape (가일미술관, 가평)
2011 Artificial Landscape (관훈갤러리, 서울)
2009 Artificial Landscape (노암갤러리, 서울)
2008 Artificial Landscape (Geneva Palexpo, 제네바)
2007 Crystallized-from Painting to Drawing (인사아트센타, 서울)
2006 Crystal Nostalgia (CJ갤러리, 샌디에고)
2005 Crystal Nostalgia (WHITE BOX갤러리, LA)
...등 30회 (서울, 가평, 안양, 제네바, 샌디에고, L.A. 외)

후원
스와로브스키 코리아, 스와로브스키 오스트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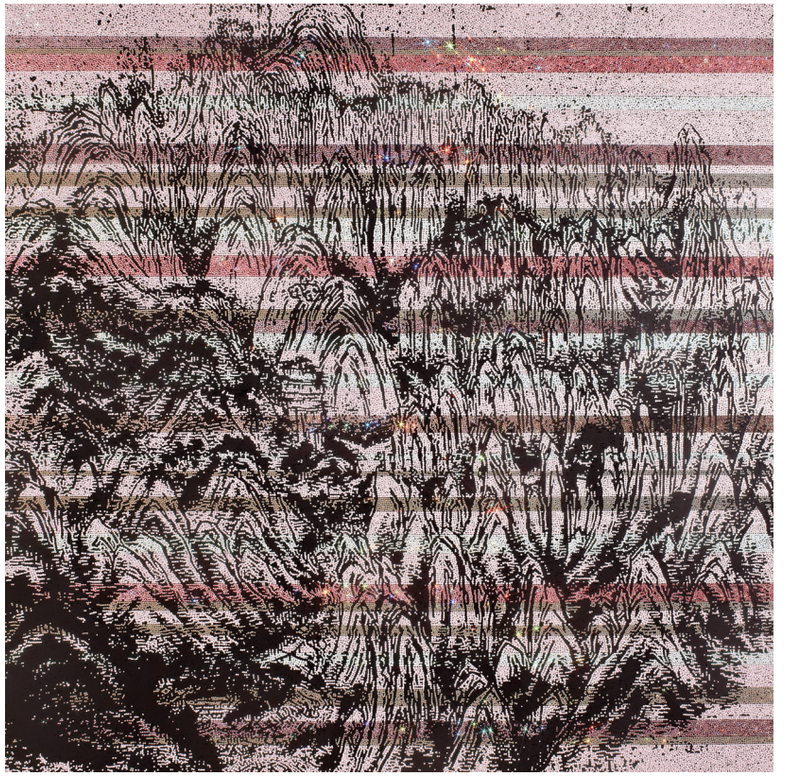
Project
2022 Golden Maewha 2 Project (Hoban Construction x Work– Collaboration)
2021 LG Signature Meta-Verse Exhibition (LG x 5 Works, Video– Collaboration)
2021 World Consumer Electronic Show (LG x Works Video– Collaboration)
2020 Utopia 15 Project (Club D x Work– Collaboration)
2019 LG OLED TV Advertisement (LG x Works, Video– Collaboration)
2018 JTBC DRAMA SKY CASTLE (La Centra x Works, TV– Collaboration)
2018 Utopia 11 Project (LG The Whoo x Work– Collaboration)
2017 Blue Maehwa Project (Seoul East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x Work– Collaboration)
2016 Norweigan Joy Cruise(German) Project (Courtyard Restaurant x 3 Works– Collaboration)
2016 Crystal Maewha Project (Haeundai Audi x Work– Collaboration)
2012 ARTIFICIAL LANDSCAPE-Mirror Project (SWAROVSKI Austria x Work– Collaboration)

기획초대전 (단체전)
2022 K-Art in Dubai (Park Hyatt/8th Street Studios, 두바이)
AMULET_호령 (서울/하남스타필드/부산)
2021 비-상한 NFT 아트 (코엑스, 서울)
광저우 아트페어 2021 (광저우엑스포, 광저우)
Art Miami 2021 (마이애미파빌리온, 마이애미)
West Bund 2021 (웨스트번드아트센타, 상하이)
One Fine Day (LG시그니처아트갤러리, 온택트)
Art Shenzhen 2021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신전)
Art Xiamen 2021 (Fujian Province, 시안)
풍경을 그려내는 법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2020 HELLO MASK (온유갤러리, 안양)
주목작가 5인 (U.H.M.갤러리, 서울)
2019 피어나다 (아트스페이스호서, 서울)
아시아위크 2019 (강컨템포러리, 뉴욕)
2018 ARTMINING (DDP, 서울)
The history of 후- Bichup, The Royal Art (리츠칼튼, 홍콩)
화양연화 (조선대학교미술관, 광주)
LIGHT-SCAPE (KEB하나은행 PB센터, 서울)
2017 Context Miami 2017 (마이애미파빌리온, 마이애미)
CIGE 2017-아트베이징 (중국농업박물관, 베이징)
Korean Art-Now and Then (강컨템포러리, 뉴욕)
Mirage Printainer-봄날의 신기루 (플래폼-L, 서울)
전통, 보석과 만나다 (보석박물관, 익산)
아시아위크 2017 (강컨템포러리, 뉴욕)
2016 Context Miami 2016 (마이애미파빌리온, 마이애미)
Art Central Hong Kong 2016 (Harbourfront, 홍콩)
시선유도 (그림손갤러리, 서울)
2015 미술과 노닐다 (호서대미술관, 아산)
선물 (어울림미술관, 고양)
어폴더블 뉴욕(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 뉴욕)
2014 미술과 이상 (이화여대 현대미술관, 서울)
고양아티스트 365 (어울림미술관, 고양)
2013 Korean Stance (Gainey Gallery, 미시건)
CIGE 2013-아트베이징 (중국농업박물관, 베이징)
Harbingers of Spring (브린아딘 대학, 필라델피아)
2012 AP21 한중교류 (빈해대학박물관, 청도)
미술관나들이-현대미술 속으로 (안양파빌리온, 안양)
2011 겸재, 오늘에 되살리기 (겸재정선기념관, 서울)
검소한 미학-아페르토 (가일미술관, 가평)
2010 色視萬發 (FEIZI갤러리/상하이, 자하미술관/서울)
2009 The Circular Exhibition (HUN갤러리/뉴욕, Artodrome갤러리/베를린)
2008 한국현대미술의 현재와 미래 (광주비엔날레, 광주)
2007 Encore Alaska (International Gallery of Contemporary Art, 알래스카)
2006 천태만상 (황성예술관, 베이징)
... 등 다수



ARTIFICIAL LANDSCAPE- Louminous Crystal 2

2018, Mixed media & Swarovski's cut crystals on canvas,
194.4 x 194.4cm



ARTIFICIAL LANDSCAPE- Pink Variation

2011, Mixed media & Swarovski's cut crystals on canvas,
140 x 140cm

ARTIFICIAL LANDSCAPE- Greige Picture

2017, Mixed media & Swarovski's cut crystals on canvas,
130.3 x 194.4cm

ARTIFICIAL LANDSCAPE- Mountain Grei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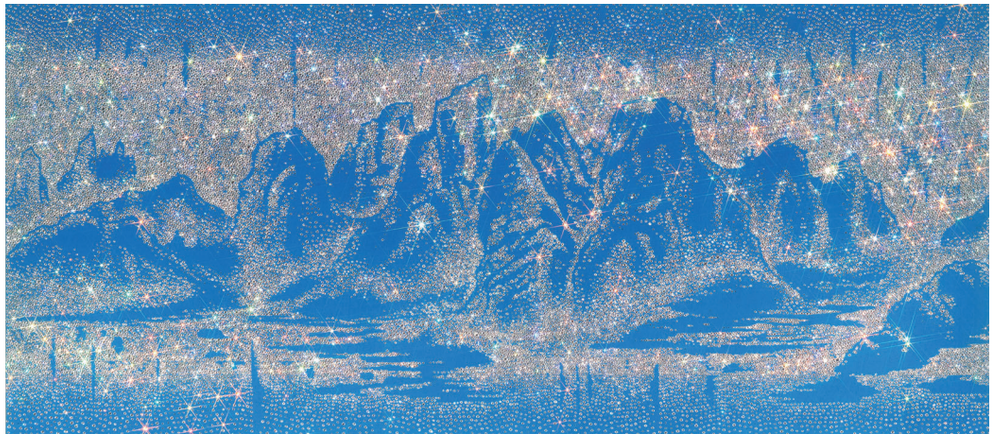
2017, Mixed media & Swarovski's cut crystals on canvas,
132 x 108cm

순수한 가상

미국의 철학자 수잔 랭거(Susanne K. Langer, 1895-1985)는 자신의 유명한 예술상징이론서『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예술가는 생(生)과 정념(情念)의 인상을 표현하는 형식으로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자연 세계와의 연결에서 단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기술한 바 있다. 그 말인즉슨, 화가는 세계를 일반화하지 않으며, 그가 서 있는 자연 공간과는 연속 관계가 전혀 없는 허(虛)의 공간, 즉 순수한 공간 이미지를 창조해 냄으로써 회화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현실 시각과 단절한 이 허의 공간은 지성(知性)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초월의 장소이기에 오로지 가상(假象)으로만 이해되어야 한다. 참된 예술, 참된 가상은 감정의 격앙이 아니라 끝없이 격앙되는 세계의 인상(印象)일 것이며, 펼쳐진 세계를 기만하는 환영이 아니라 초월의 펼침일 것이다.

이른바 '크리스털 페인팅', '전통 산수화의 현대적 해석' 등의 수식으로 대중에 잘 알려진 김종숙의 회화도 바로 이 지점에서 거부할 수 없는 참이 된다. 그의 그림은 실크스크린으로 재해석된 고풍스러운 조선 산수화 위에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오팔, 진주와 같은 보석이 물감과 선(線) 대신 촘촘히 박혀 매 순간 달라지는 빛의 향연을 연출하는 형국이다. 작가가 20여 년을 매진해 온 '인공 풍경'(Artificial Landscape)은 자연 세계와의 단절을 통해 등장했기에 '인공 풍경'일 테지만, 인공적인 아름다움은 화면 어디에도 없다. 오랜 시간 동안 김종숙이 그리고자 한 것은 보석의 흥취를 이기는 생(生)과 정념(情念)의 비전(vision)이었으며, 순간의 반짝임을 견디는 순수한 가상의 지속(持續)이었다. 전통 산수화 위에 더해진 보석의 물성과 그 값비쌈에 투사된 인간적인 욕망은 '허'의 아름다움만을 남기고 빛의 유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겸재(鄭歚)로 대표되는 18세기 조선 산수화의 양식적 특징과 우리 산천의 실경(實景), 정물의 단단한 존재감과 유토피아적 발상을 찾아보려 선과 색의 길을 따라가 보지만, 오묘한 파장의 기운생동(氣韻生動)한 뉘앙스들만 정신에 포착될 뿐이다. 꽉 채운 것들을 비워내니 이제야 작가의 그림이 보인다.

이 재 걸 | 미술평론 (김종숙 작품 평론글 "허(虛)의 황홀경" 발췌)



ARTIFICIAL LANDSCAPE- Morning Cal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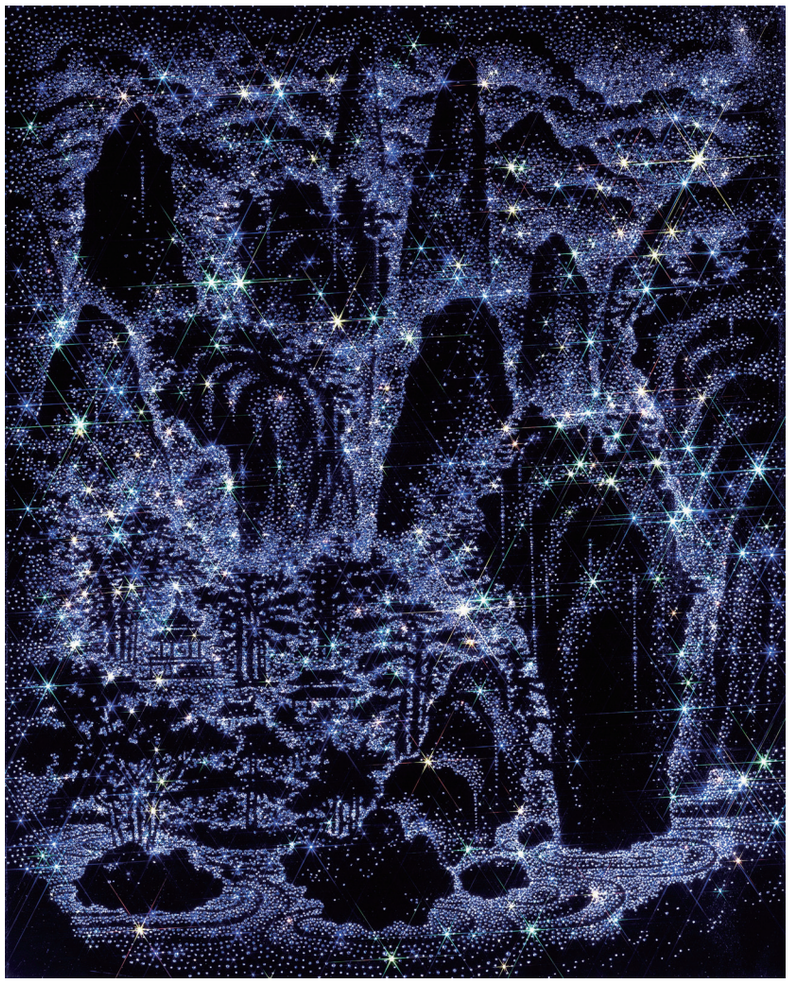
2013, Mixed media & Swarovski's cut crystals on canvas,
70 x 160cm

ARTIFICIAL LANDSCAPE- Luminous Greige 03

2020, Mixed media & Swarovski's cut crystals on canvas,
100 x 2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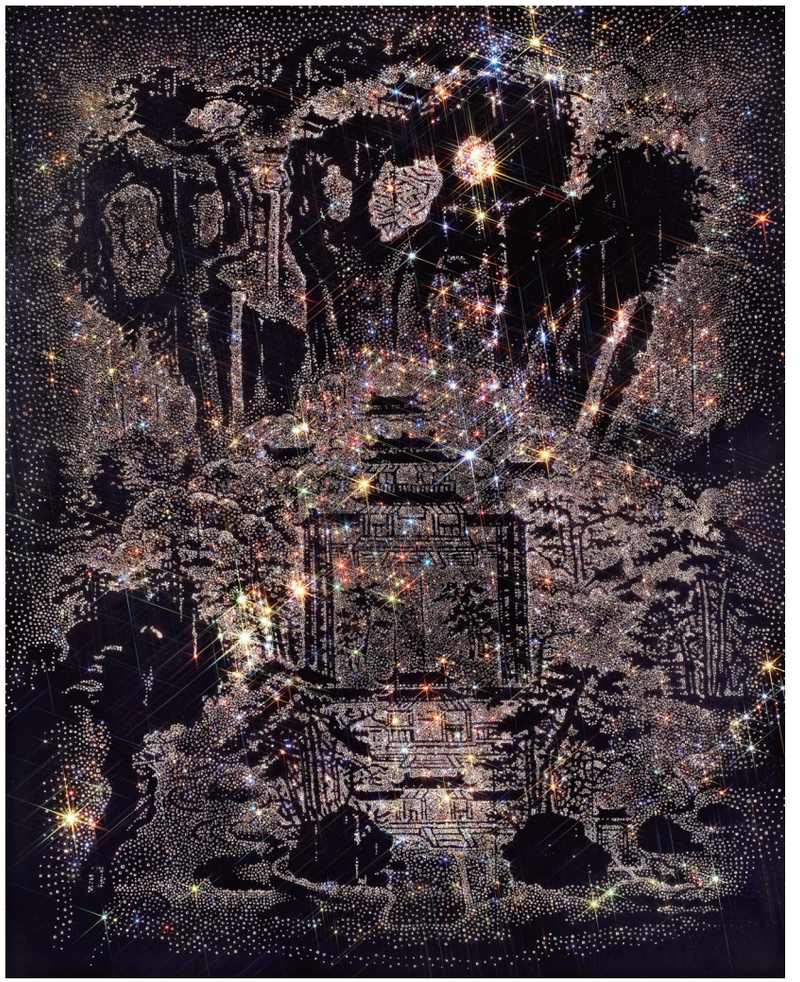
ARTIFICIAL LANDSCAPE- Luminous Greige 04

2020, Mixed media & Swarovski's cut crystals on canvas,
100 x 200cm



ARTIFICIAL LANDSCAPE-Utophia 14

2019, Mixed media & Swarovski's cut crystals on canvas,
162.4 x 130.3cm



ARTIFICIAL LANDSCAPE-Utophia 9

2013, Mixed media & Swarovski's cut crystals on canvas,
162.4 x 130.3cm

ARTIFICIAL LANDSCAPE- White Material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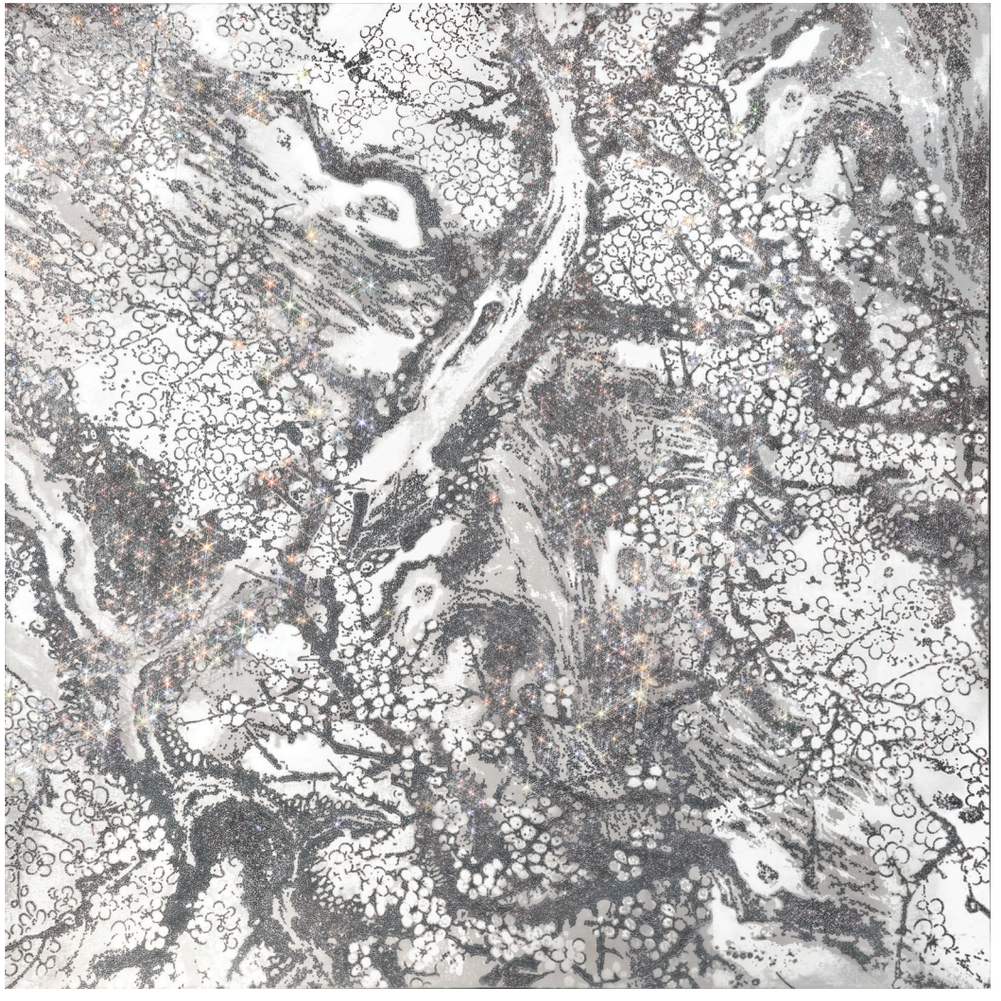
2019-2020, Mixed media & Swarovski's cut crystals on canvas,
181.8 x 909cm

ARTIFICIAL LANDSCAPE- White Material 06

2020, Mixed media & Swarovski's cut crystals on canvas,
150 x 15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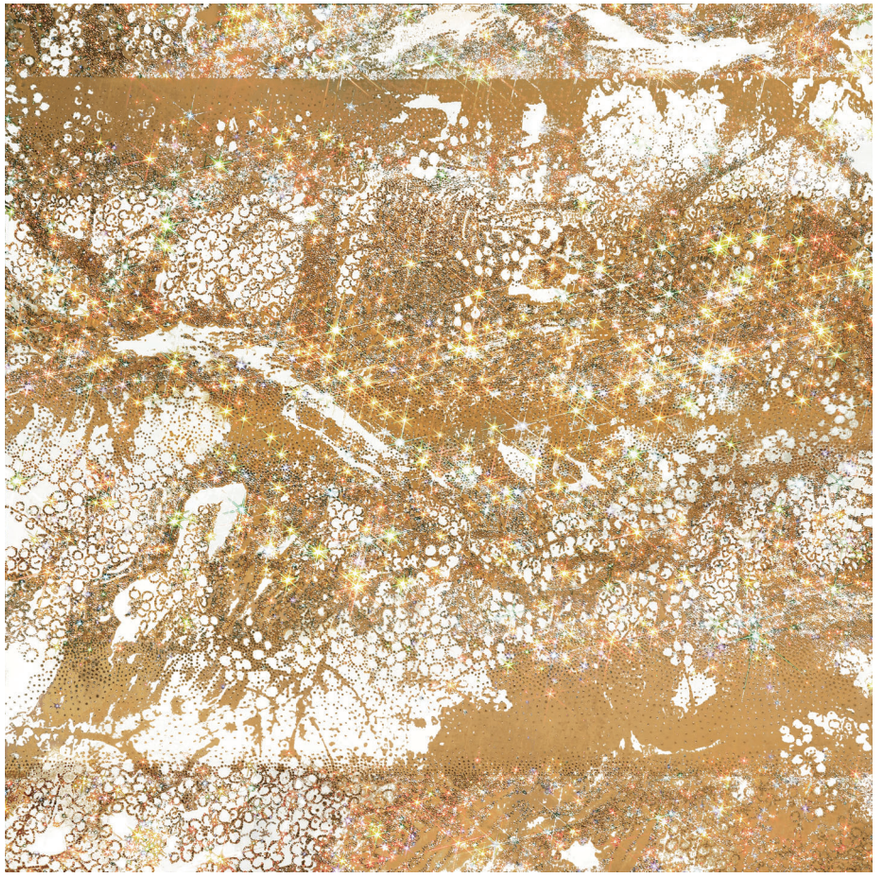
ARTIFICIAL LANDSCAPE- White Material 10

2022, Mixed media & Swarovski's cut crystals on canvas,
180.8 x 180.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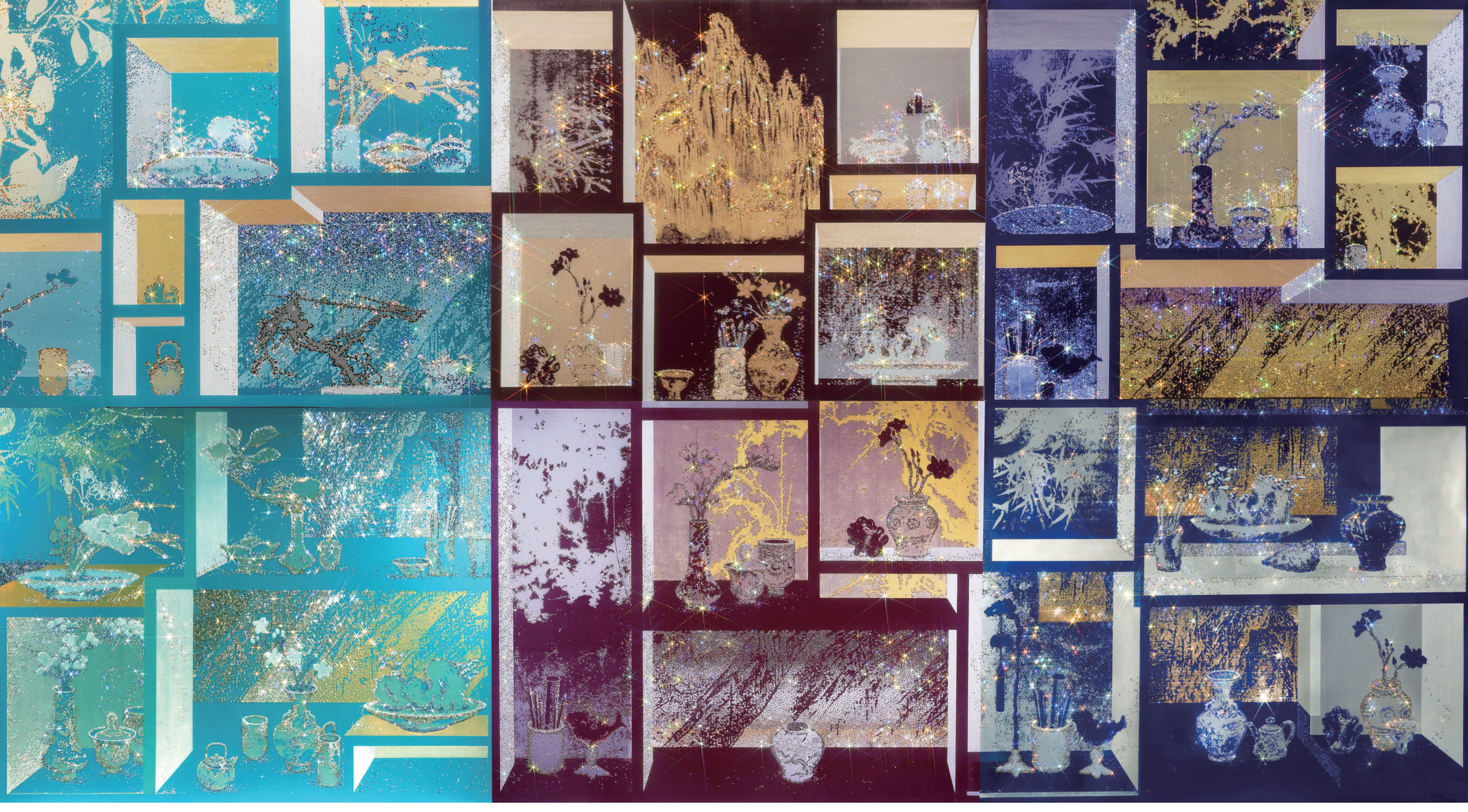
ARTIFICIAL LANDSCAPE- Platinum Maewha 1

2022, Mixed media & Swarovski's cut crystals on canvas,
194.4 x 194.4cm



ARTIFICIAL LANDSCAPE- Golden Maewha 2

2022, Mixed media & Swarovski's cut crystals on canvas,
180.8 x 180.8cm



ARTIFICIAL LANDSCAPE- Still Life 1 (Chaek-ga)

2018, Mixed media & Swarovski's cut crystals on canvas,
260.6 x 487.2cm

FLOATING LANDSCAPES

유영하는 풍경들

KIM JONG SOOK SOLO EXHIBITION

2022.08.19 ~ 2022.09.18

주최 호반문화재단, 아트스페이스 호화

디자인 NNGC

HOBAN
호반문화재단